

허정무? 정해성? 신태용?...새 대표팀 감독 3파전

오늘 기술위원회, 슈감독 경질 불가피

협회 수뇌부·기술위 '패배=경질' 이미 공감
후임엔 사상 첫 원정16강 이론 허정무 유력
정해성 코치 감독 승격...신태용 감독도 거론

이제는 축구국가대표팀 울리 슈틸리케(63·독일) 감독과 이별할 시간이다. 대표팀은 14일(한국 시간) 도하에서 열린 카타르와의 2018러시아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A조 8차전 원정경기에서 2-3으로 무너졌다. 4승1무3패(승점 13)로 조 2위 자리는 지켰지만, 하루 전 이란 원정에서 0-2로 패한 3위 우즈베키스탄(4승4패·승점 12)과의 격차를 벌리는 데는 실패했다. 역사에 가정은 무의미하지만, 만약 이겼더라면 승점 4점차로 여유를 얻을 수 있었기에 아쉬움은 더욱 짙게 남는다.

대한축구협회(회장 정몽규)는 15일 경기도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기술위원회(위원장 이용수)를 열고 슈틸리케 감독의 거취를 최종 결정한다. 물론 형식적 절차일 뿐,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회가 15일 울리 슈틸리케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의 거취를 논의한다. 슈틸리케 감독의 경질은 유력하다. 오히려 이번 기술위원회에선 2018러시아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의 남은 9·10차전을 이끌 임시 사령탑 인선 문제를 다룰지 관심을 모은다. 허정무 한국프로축구연맹 부총재, 정해성 대표팀 수석코치, 신태용 전 대표팀 코치(왼쪽부터)가 물망에 올라있다.

슈틸리케 감독 경질은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협회 고위관계자들도 14일 "패배라는 결과도 안타깝지만, 우리 대표팀이 비전과 희망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카타르 원정경기는 슈틸리케 감독이 월드컵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악화된 여론도 무시할 수 없다"며 어두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일찌감치 큰 그림은 마련해놓은 것으로 파악된다. 종전보다 넉넉한 준비시간을 부여받은 대표팀이 이번 카타르 원정에 나서기 전 협회 수뇌부와 기

술위원들은 어느 정도 입장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에 하나 닥칠 수 있는 최악의 사태를 염두에 두고 '패배=이별' 등식을 미리 세웠던 것이다.

물론 목표대로 승점 3을 확보했다더라면 이번 기술위의 의제는 조금 달라질 수 있었다. 최근 폐막한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코리아 2017' 결산 보고 및 U-20 대표팀을 포함한 각급 연령별 대표팀 코칭스태프 선임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었다. 대표팀의 경우에는 카타르 원정에 대한 개괄적인 평가 정도가 유력했다.

그러나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A대표팀 사령탑 경질'이란 난제가 추가됐다. 이 과정에서 기술위원회 소집장소도 당초 잡아놓은 서울 종로구 신문로의 축구회관이 아닌 파주NFC로 변경됐다. 14일 오전 회의 소집 통보를 받은 기술위원들은 이날 늦은 오후 정확한 스케줄을 통보받았다.

이미 슈틸리케 감독의 거취는 0-1 패배로 끝난 3월 중국 원정경기 직후 진지하게 논의된 바 있다. 당시 내려진 결정은 '조건부 유임'이었다. 향후 발전상을 보인다면 계약기간 또한 이번 최

종예선까지가 아니라 내년 러시아월드컵 본선까지 자동적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충분했다. 그러나 슈틸리케 감독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원칙 없는 선수 선발과 기용 ▲무색무취한 전략·전술로 일관한 끝에 역대 최악의 참사를 낳았다. '네 탓'을 기반으로 한 변명역시 그대로였다.

이제 축구계의 관심은 차기 사령탑으로 향한다. 시나리오는 크게 3가지로 예상된다. 높은 몸값이 부담스러워 지도자로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았던 슈틸리케 감독을 선임한 협회의 자금사정을 고려할 때 외국인 사령탑을 선임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지금으로선 2010남아공월드컵에서 국내 감독으로는 사상 첫 원정대회 16강 진출의 위업을 일군 허정무(62) 한국프로축구연맹 부총재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슈틸리케 감독을 보좌하기 위해 대표팀에 최근 긴급 합류한 정해성(59) 수석코치의 감독 승격, 지난해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 이어 올해 U-20 월드컵에 나선 신태용(47) 감독의 소방수 투입 등이 축구계에서 언급되고 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이용수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장(오른쪽 3번째)이 14일 굳은 표정으로 대표선수들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이용수 기술위원장 “슈틸리케 거취 집중토론...변화 필요”

충격의 패배...선수들 무거운 귀국 발걸음
기성용 “선수들도 개인적으로 반성해야”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용수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장이 울리 슈틸리케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표팀은 14일(한국시간) 도하에서 벌어진 카타르와의 2018러시아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A조 8차전 원정경기에서 2-3으로 패했다. 경기 직후 귀국길에 올라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 위원장도 함께 귀국했다.

이 위원장은 귀국 직후 기자회견에서 “15일

파주에서 기술위원회를 갖는다. 전체적인 의견을 종합해 대표팀의 앞날에 도움이 될 결정을 해야 할 것 같다. 우선은 슈틸리케 감독의 거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결정을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 결과가 좋지 않아 비행기 안에서 슈틸리케 감독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진 못했다. 공황에서 대표팀의 경기력 향상에 대한 변화를 놓고 이야기를 나눴다. 2경기 남은 상황에서 3위(우즈베키스탄)에 승점 1점 앞선 불안한 2위를 유지하고 있다. 남은 2경기를 모두 이기면 좋겠지만, 일단 홈에서 열리는 이란과의 경기(8월 31일)를 승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충격적 패배로 대표팀의 귀국 발걸음도 무겁기만 했다. 주장 기성용(스완지시티)은 “어려운 경기를 했다. 1대1 경합에서 상대에게 밀렸고, 전술적으로도 상대가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며 “몇 경기 전부터 언론이 부정적인 기사 등을 통해 (대표팀) 분위기를 흔들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는 압박감이 어느 때보다 컸다. 우리가 받지 말아야 할 부담까지 안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감독님의 거취를 떠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선수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카타르전에서 오른쪽 팔뚝을 다친 손흥민(토트넘)은 귀국 직후 정밀진단을 위해 병원으로 이동했다.

인천국제공항 |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주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는 듯했다. 축구대표팀 기성용이 1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어두운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 김민성 기자

슈틸리케 감독 “자진사퇴 생각해본 적 없다”

“기술위 어떤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남은 경기 이기고 본선가는게 중요”

경질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울리 슈틸리케(63·독일) 대표팀 감독은 입국 인터뷰에서 끝내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오히려 2018러시아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A조의 남은 2경기(8월 31일 이란·9월 5일 우즈베키스탄)에서 승리한다면 본선행 티켓을 따낼 수 있다는 말로 여

전히 미련을 갖고 있음을 내비쳤다. 1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그는 “감독은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최근 대표팀 성적이 안 좋았다. 그 부분은 책임져야 한다”면서도 “나머지 2경기를 이기면 본선에 갈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카타르 원정에서 참패했다.

“모든 경기의 결과는 감독이 책임져야 한다.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모처럼 선수단을 조기에 소집했는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조기 소집을 했고, 이라크와 평가전도 치르며 카타르 원정을 준비했다. 이런 상황에서 결과가 좋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 준비기간도 길었고, 준비한 대로 선발 명단을 꾸렸다. 그러나 결과가 나오지 않아 아쉽다.”

-자진사퇴 의사가 있는지.

“생각해본 적 없다. 아직 2경기가 남았고, 우리 대

표팀이 홈에선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 다만 원정에서 승리가 없는 것은 아쉽고, 홈과 원정에서 경기력의 차이가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래도 2경기가 남았고, 2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란전, 우즈베키스탄전에서 승리하면 본선에 진출할 수 있다.”

-15일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회가 열리는데.

“알고 있다. 기술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고, 이용수 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 나머지 2경기에서 승리하면 자격으로 본선에 진출할 수 있다. 대표팀이 나와 함께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본선 진출이다. 팀이 다시 일어서야 한다. 이것이 중요하다.”

인천국제공항 | 정지욱 기자

2018러시아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중간순위										
조	순위	국가	승	무	패	득	실	승점		
A	1	이란	6	2	0	8	0	20		
	2	한국	4	1	3	11	10	13		
	3	우즈베키스탄	4	0	4	6	6	12		
	4	시리아	2	3	3	4	5	9		
	5	카타르	2	1	5	6	10	7		
	6	중국	1	3	4	5	9	6		
B	1	일본	5	2	1	15	6	17		
	2	사우디아라비아	5	1	2	15	8	16		
	3	호주	4	4	0	14	8	16		
	4	UAE	3	1	4	8	11	10		
	5	이라크	1	2	5	8	11	5		
	6	태국	0	2	6	4	20	2		

※ 조 1·2위는 본선 직행, 조 3위는 PO 진출.

※ 이란은 A조 1위로 본선 직행 확정.

A조 판도, 그야말로 오리무중

한국 카타르전 패배로 이란만 1위 확정
본선행 2위 싸움, 시리아·카타르도 가능

한국축구는 2018러시아월드컵 본선 직행을 향한 천금의 기회를 스스로 건어쳤다. 잘 차려진 밥상을 뒤엎은 꼴이다. 이란이 13일(한국시간) 테헤란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열린 러시아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A조 8차전 홈경기에서 우즈베키스탄을 2-0으로 꺾고 본선행을 일찌감치 확정했을 때만 해도 분위기는 좋았다. 우리가 14일 카타르 원정에서 승점 3을 챙기면 한결 여유워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섰다.

그러나 상상하기도 싫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졌다. 꽃길이 아닌 가시밭길이다. 먼저 2골을 내준 뒤 어렵사리 동점까지 쫓아갔지만 거기가 끝이었다. 오히려 한국의 2-3 패배로 이란의 A조 1위까지 확정됐다.

이란(6승2무·승점 20)을 제외한 A조 판도는 훨씬 복잡해졌다. 한국(4승1무3패·승점 13)과 우즈베크(4승4패·승점 12)의 2위 싸움이 점입가경 양상이다. 산술적으로는 4위 시리아(2승3무3패·승점 9), 5위 카타르(2승1무5패·승점 7)에도 아직 희망이 있다. 최종예선 조 2위의 의미는 엄청나다. 2위까지는 본선에 직행하지만, 3위로 밀려나면 되면 다른 조 3위와 플레이오프(PO)를 치른 뒤 북중미 4위와 대륙간 PO까지 거쳐야 한다.

한국은 8월 31일 이란과 9차전 홈경기, 9월 5일 우즈베크와 최종 10차전 원정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이미 본선행 티켓을 확보했다고 이란의 준비가 허술할 것으로 지레 짐작하면 곤란하다. 고비마다 우리에게 번번이 아픔을 안긴 난적 중의 난적이 바로 이란이다. 이란 지휘봉을 잡고 있는 카를로스 케이로스 감독은 조별리그 무패 통과를 노리고 있다. 결국 한국의 운명은 우즈베크 원정에서 가려질 공산이 현재로선 가장 크다.

A조보다는 정리가 된 편이지만, B조 역시 아직은 안개속이다. 13일 이라크와 1-1로 비긴 일본(5승2무1패·승점 17)이 조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2위 사우디아라비아(5승1무2패)와 3위 호주(4승4무·이상 승점 16)가 그 뒤를 맹렬히 쫓고 있다. 남은 9·10차전에서 얼마든지 순위가 물구나무를 설 수 있다. 특히 일본은 호주(홈, 사우디(원정)와 2연전을 치러야 하는 까닭에 방심할 수 없는 처지다. 어찌됐든 B조에 걸린 본선행 티켓 2장과 PO행 티켓 1장은 3강 일본-사우디-호주가 나눠가질 것이 유력하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편집 | 최해경 기자 hk7048@donga.com